



성철 스님의 '진면목'을 논한다

백련문화재단 11주기 맞아 5일 고려대서 학술회의 생애와 사상 다각적 연구... '돈오론' 재조명



윤원철 교수 김광식 교수 김영욱 박사 박해당 박사

퇴옹당 성철 스님을 동아시아 선종사상사의 맥락에서 조명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스님의 진면목에 다가서기 위한 학술회의가 백련불교문화재단(이사장 원택) 주최로 11월 5일 고려대 경영관에서 열린다.

성철 스님 열한 11주기를 맞아 열리는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돈오돈수론뿐 아니라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전반적으로 포괄하고 있어 성철 스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골 주제인 돈오돈수론을 직접 다룬 논문으로는 윤원철 서울대 교수의 '돈오돈수론의 문화비평적 의의'와 김종인 고려

대 연구교수의 '한국불교의 현실과 성철의 돈오돈수'를 들 수 있다. 윤원철 교수는 성철 스님의 돈오돈수론과 지눌 스님의 돈오점수론은 각각 상이한 근기의 문화적 풍토를 배경으로 제기된 것이라는 주장을, 김종인 교수는 성철 스님의 주장이 새로운 문화적 환경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고 정체해 있던 한국 불교의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뤄졌다는 해석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김광식 교수(부천대)와 허우성 교수(경희대)는 성철 스님의 사상을 실천적 관점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허우성 교수는 간디와의 비교를 통해 '순수절대불

교'를 지향한 성철 스님의 실천적 측면을 평가한다.

이번에 발표되는 논문들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논문은 김영욱 박사(가톨릭대)의 '퇴옹의 간화선'과 박해당 박사(서울대)의 '성철의 법맥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다. 전자는 다투기 쉽지 않은 저술로 정평이 나 있는 <본지풍광>을 통해 성철 선사상을 밝혀내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후자는 논쟁적인 주제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박해당 박사는 <한국 불교의 법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성철 스님의 오류를 파헤친다. 다음은 이들 두 편의 논문 요약.

김영욱 '퇴옹의 간화선' "‘본지 풍광’에 간화선사면모"

성철 스님이 직접 100칙의 공안을 선별해 해설을 붙이고, 계승 등을 비평한 형식의 <본지풍광>에는 조사선의 세계와 한 몸이 돼 살아간 수행자 아니고서는 흉내 낼 수 없는 안목과 간화선의 정수가 담겨 있다. 이 점에서 <본지풍광>은 성철 스님의 간화선사로서의 면모를 가장 잘 드러낸 책이다.

<본지풍광>에서 성철 스님은 알려진 선어와 계승 등을 재구성해, 또 하나의 화두로 전환시키고 있는데 여기에는 △화두를 곁걸음으로 배치하는 방법 △허언(虛言)을 던져 착각을 유도하는 방법 △경계에 의탁하는 방법 등이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성철 스님의 선법을 이해하

면 '돈오'의 내적 맥락 파악이 훨씬 용이해진다. 본질적으로 은산철벽일 수밖에 없는 화두를 곁걸음으로 배치해 접근할 길도, 빠져나갈 길도 막힌 상황에서 화두는 어떤 의미로도 환원되지 않기에 단계적인 공부란 가능하지 않다. 어떤 공안이든 그 핵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은산철벽이며 그것을 타파하는 방법은 돈오일 수밖에 없다.

간화선은 돈오를 종지로 표방하거나 직접 언급하지는 않지만, 사상적 맥락에서 곁걸음으로 배치하는 방법 △허언(虛言)의 사상과 수행법에서 돈오의 요소를 찾아내는 것은 성철 스님 간화선의 핵심을 밝히는 일과 통한다.

박해당 '성철의 법맥...' "이념적 사자상승 선택"

성철 스님의 태고종조설 옹호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오류는 자신이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겨 <한국불교의 법맥>에서도 법맥 형성의 핵심 요건으로 제시한 '제자의 깨달음에 대한 스승의 직접적인 인정'을 정자 자신의 태고종조설에는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자기모순을 범하고 있다는 점이다. 태고종 조설은 '태고보우-환암훈수-구곡각운-벽계정심-벽송지엄-부용영관-휴정'의 법맥을 주장하지만 이들 스님 사이의 직접적인 인가관계는 역사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이 아니다.

이와 같은 법맥은 휴정 스님 자신이 밝힌 법맥과도 상이하다. 보주·태고종조설의 핵심 정점이 휴정 스님의 법맥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간과할 수 없는 오류다. 즉 벽송지엄·부용영관 스님의 법맥

을 자신이 계승하고 있으며, 벽송지엄 스님은 말리 고봉·대해 스님의 법을 이었다고 휴정 스님은 밝히고 있지만 그 사이의 구체적인 인맥은 제시한 바 없다. 이런 법맥관은 '뒤에 깨달은 이가 증득한 경지'에 의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는데, 직접적 인가를 중시하는 성철 스님의 법맥관과는 상반된다.

이처럼 역사적 사실과 배치되며 자기모순적인데도 불구하고 성철 스님이 태고종 조설을 옹호한 것은 역사적 사실로서의 사자상승(師資相承)보다는 이념·명분적인 사자상승을 선택한 결과로 봐야 하며, 여기에는 입제선종을 통한 한국선불교 수행 전통 확립에 대한 서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자 건물지 첫 발견 경주 남산 인룡사지서 금동여래 입상 등 다량 출토



통일신라 초기 것으로 추정되는 전(傳)인룡사지 출토 금동여래입상

당나라 감옥에 갇힌 신라 문무왕의 동생 김인문(628-694)의 석방을 기원하기 위해 지어졌다고 전해지는 경주 남산 인룡사지서에서 '+'자 형태의 건물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견돼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지역을 2002년 11월부터 발굴 조사하고 있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윤근일)는 10월 29일 지도위 원화를 열고 2기의 탑지 외에 중문지, 금당지, 동·서회랑, 익랑, 담장 등 통일신라시기의 사찰가람의 구조를 추정할 수 있는 건물기초시설 유구들을 공개했다. '+'자 건물지는 중문지로 추정되는 자리에 있는 것으로, 발굴팀은 중문의 누각형 건물 구조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각종 와전류, 토기류, 자기류와 소형 금동여래입상(4.2cm), 치미(잔존높이 100cm, 폭 70cm), 토제 소탑(높이 6.5cm), 팔부중상(八部衆像)이 부조된 탑 기단면석, 다수의 명문과 등 500여 점의 유물이 출토됐다. 이 가운데 치미는 복원할 경우 높이가 약 120cm 가량 돼, 황룡사지 출토 치미(높이 182cm, 폭 105cm) 다음으로 큰 것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윤근일)는 10월 29일 지도위 원화를 열고 2기의 탑지 외에 중문지, 금당지, 동·서회랑, 익랑, 담장 등 통일신라시기의 사찰가람의 구조를 추정할 수 있는 건물기초시설 유구들을 공개했다.

이 지역을 2002년 11월부터 발굴 조사하고 있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윤근일)는 10월 29일 지도위 원화를 열고 2기의 탑지 외에 중문지, 금당지, 동·서회랑, 익랑, 담장 등 통일신라시기의 사찰가람의 구조를 추정할 수 있는 건물기초시설 유구들을 공개했다. '+'자 건물지는 중문지로 추정되는 자리에 있는 것으로, 발굴팀은 중문의 누각형 건물 구조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각종 와전류, 토기류, 자기류와 소형 금동여래입상(4.2cm), 치미(잔존높이 100cm, 폭 70cm), 토제 소탑(높이 6.5cm), 팔부중상(八部衆像)이 부조된 탑 기단면석, 다수의 명문과 등 500여 점의 유물이 출토됐다. 이 가운데 치미는 복원할 경우 높이가 약 120cm 가량 돼, 황룡사지 출토 치미(높이 182cm, 폭 105cm) 다음으로 큰 것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기사 넘쳐 '우회종 교수의 불교와 생명 과학'은 쉽니다.

불교 가르침 韓·日 상생의 뿌리 확인

동국대 일본학 연구소, '21세기 한일간의...' 성료 "국가간 공생원리 실현은 시민주축돼야"

명대 교수가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와 과제'를 일본측에서는 호리에 야스히로 규슈대학 교수가 '글로벌화 속의 일본경제', 이시카미 겐노 다이쇼대학 교수가 '불교와 공생의 이념과 실천'을 발표했다. 또 플란드 피취 뮌헨대 교수는 '마이스터 에카르트와 대행 스님의 공생론 교찰'에서 비교종교학적 관점으로 두 인물의 공생 사상을 다뤄 눈길을 끌었다.

피취 교수는 논문에서 '에카르트

(1260-1328·독일)는 만물이 하나라는 공생론을 주장한 에카르트와 만물만생이 근본적으로 하나라는 진리를 한마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대행 스님의 가르침은 다르지 않다'며 비교를 시도했다.

이와 관련 피취 교수는 "에카르트가 말하는 신과 합일된 '영혼의 근저(Grund)'는 대행 스님의 '근본자리'와 같으며, 인간이 되돌아가야 할 지점으로 봤다는 점 또한 일치한다"며 "놓음" "초연" "관념" 등의 수행 방법상

의 유사점도 보인다"고 밝혔다.

이 같은 유사한 과정을 통해 도달한 깨달음은 다름 아닌 "우주 전체의 만물만생이 다 함께 연결돼 돌아가며 공생하고 있다"는 것이며, 그 체험을 통해 공생은 당위가 아닌 사실로 확인됨을 피취 교수는 강조했다.

김영필 박사는 한·일간 공생을 위해서는 "한·일간의 역사문제를 둘러싼 일본정부의 전향적인 자세가 선행돼야 한다"고 단서를 단 뒤 "양국간의 국가간 관계를 제로섬 게임으로 인식하고 있는 정부 중심의 공생프로그램보다는 양심적인 한·일 시민사회가 주축이 된 공생정치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시카미 교수는 1920년대 일본 내에서 활발했던 불교 공생활동 조직 '공생회'를 소개하며 현대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했다. 박익순 기자

불교미술학회·불교학연구회 추계학술대회 개최

통도사성보박물관 불교미술학회(회장 범하)와 불교학연구회(회장 이종표) 추계학술대회가 열린다. 불교미술학회는 11월 5·6일 통도사에서, 불교학연구회는 11월 13일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불교미술학회 학술대회에서는 서울 동덕여대 강사의 '중국 돈황 예술과 벽화'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기쿠다케 규슈산업대 교수의 기조강연 '실화를 통해 살펴보는 불교회화'를 비롯해 6명의 소장 미술사학도들의 발표가 이어진다.

'화엄과 선'을 주제로 열리는 불교학연구회 학술대회에서는 진월 스님(서울 불교대학원대학 교수)의 '초의의 다산사상', 석길환 전임연구원(한국불교연구원)의 '화엄의 상즉상입설 교찰' 등이 발표된다.

불교TV가 **확** 바뀌었습니다.

체질! 붓다의 수행법 위바사나
월 09:20 15:10 20:30

산중대담 선지식을 찾아서
목 12:00 17:30 22:10

휴먼다큐 아름다운 사람들
목 09:20 15:10 20:30

명상음악산책
월-토 07:50 21:30 00:40

예정정사의 인공수행강좌
월 08:20 13:10 19:30

왕초보도 따라하는 불교예절 불교상식
월-토 16:00 21:20 00:30

불교 메탈

불교TV 제작부 TEL : 02-3270-3452~3457 www.btn.co.kr